

## 모범답안 \_ 인문사회계열(정오반)

### -문항1-

제시문에서 서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영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나타난 다양한 측면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누리는 같은 문제에 대해 서영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누리는 언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으로 정보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이 더욱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독점하고 미디어를 장악한 소수의 권력층이 그렇지 못한 국민들을 지배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둘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격차와 정치 양상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나는 누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과 질의 정보가 주어진다 고 가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서영의 주장대로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언어, 빈부, 개인의 능력의 차이 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정보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사회는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과 정보에서 소외되어 그 권력에 휘둘리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된다. 요즘 자주 들리는 말 중 "여론조작"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미디어의 영향력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한정된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미디어에서 이끄는 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정부에 일이 생기면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터진다.'는 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열애의 정보를 갖고 있는 권력층에서 이를 화제로 만들어 본인들의 문제를 덮는데 이용하곤 하지만 미디어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대다수의 국민은 그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굳이 정치같이 딱딱한 주제까지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정보 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격차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제를 할 때, 길을 찾을 때 등의 경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 격차를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정보 격차를 만들어내며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영의 말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정보통신의 기술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소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정보통신의 발전은 사회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정보를 갖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문항 2-

한국의 고령화 사회의 특징은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2000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지만 초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사회에서 고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비 부담 문제이다. 고령층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지만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부양비는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다. <표3>에서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2010년에는 15%에서 2050년에는 72%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이 심해지면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어려움, 생산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 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생산가능인구비율이 낮아지면 나라의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나타날 결과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65세 이상의 고령층 노인들이 직접 겪게 될 어려움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편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연령이 높아지지 않고, 복지 시설이나 정책의 발전 속도가 더딘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고령층 인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고 건강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노화나 질병 등으로 몸이 아픈데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결혼 후 분가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늘어난 독거노인들이 겪게 되는 외로움이나 소외감, 그에 따른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도 흔하다. 노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할 만한 소일거리도 많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같이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산율을 늘려 유소년층 인구비율을 늘려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면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출산 후 양육비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한 예방책에 불과하다. 이미 나타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복지시설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회를 늘려 그들이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소일거리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